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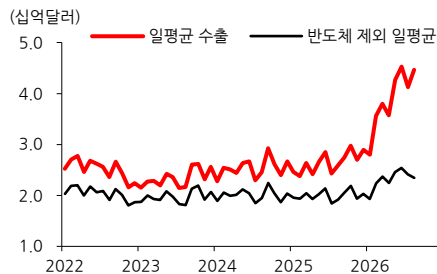
Macro Review

8월 한국 수출: 명불허전 반도체

▶ Economist 임혜윤 hylim@hanwha.com 02-3772-772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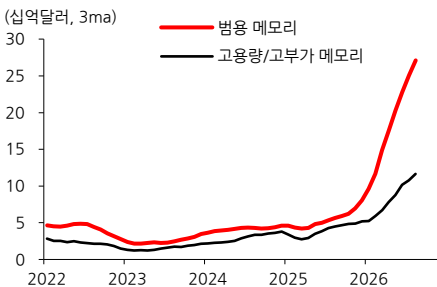
[주요 데이터 및 차트]

일평균 수출 4개월 연속 40억 달러 상회



자료: 관세청, 산업통상부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메모리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



자료: 관세청, 산업통상부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8월 수출도 강했습니다. 반도체 수출단가 상승 흐름이 지속됐고, 산업재와 소비재 수출도 양호했습니다.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가운데, 비반도체 수출 반등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.

역대 두 번째로 큰 일평균 수출

8월 한국 수출은 982.5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.7% 증가, 수입은 635.1억 달러로 22.5% 증가. 일평균 수출은 44.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2.5% 증가했고, 반도체와 선박 제외 일평균 수출도 27.5% 증가

20대 품목 중 자동차, 선박 등을 제외한 15개 품목 일평균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증가. 직전 3개월 대비 흐름이 양호한 품목은 컴퓨터, 석유제품, 무선통신기기, 반도체. 지역별로는 중국과 ASEAN으로의 수출이 최근 추세 대비 양호

수출단가는 전년동월대비 87.1% 상승, 수출물량은 9.9% 감소. 일평균 물량도 지난 7월 대비 4.7% 감소. 무역수지는 수출 호조가 에너지 수입단가 상승을 상쇄하면서 흑자 규모 확대(+347.5억 달러). 월간 무역 흑자 3개월 연속 300억 달러 상회

견조한 반도체, 완만한 비반도체

견조한 메모리반도체 수요 재확인. 반도체 수출액 역대 최대실적 재차 경신. 고용량/고용량 메모리(MCP)와 NAND 수출단가 전월대비 상승.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겠지만(기저효과), 단가와 물량 흐름은 메모리반도체 초과수요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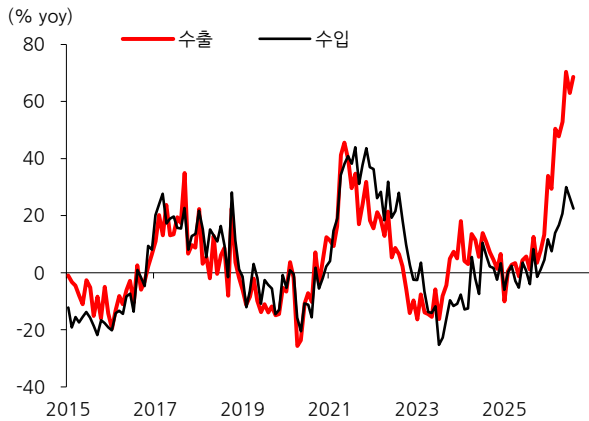
여타 품목 중에서는 석유제품, 변압기, 화장품, 라면 수출 양호. 석유제품은 단가와 물량 모두 전월대비 개선됐고, 변압기와 라면은 물량, 화장품은 단가 중심 반등. 비반도체 수출 증가율(+19.6%) 하락은 주로 자동차(-29.8%)와 선박(-45.9%) 영향. 반도체 대비 약하지만, 비반도체 수출 또한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음

1~8월 수출은 6,9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2.8% 늘었고,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은 171.7%, 비반도체 수출은 17.9% 증가.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수출 1조 달러 및 수출 증가율 50% 상회 유력

[Compliance Notice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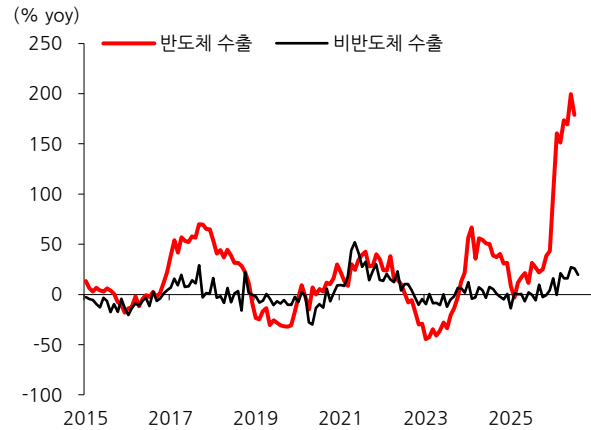
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.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[그림1] 8월 수출/입, 각각 YoY +68.7%, +22.5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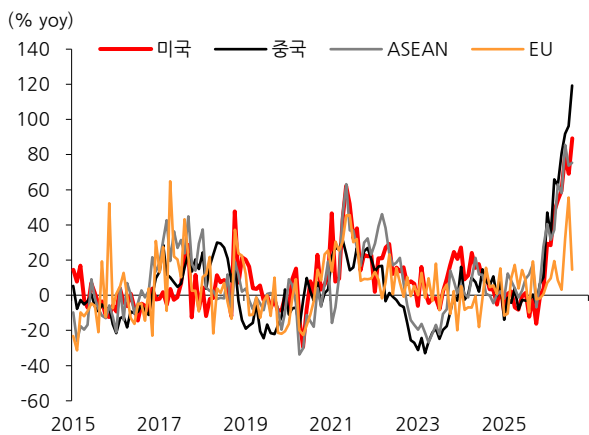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2] 반도체 +209.0%, 반도체 이외 수출 +19.6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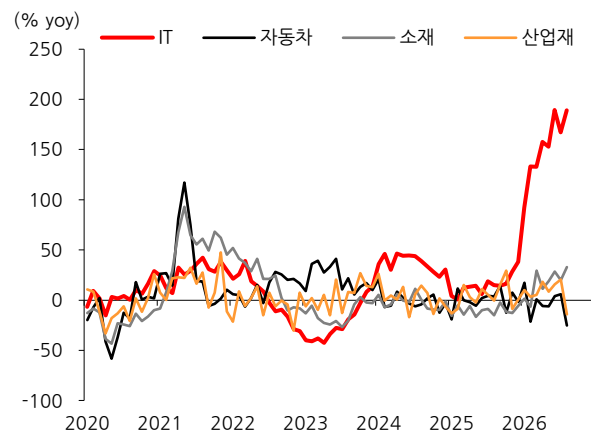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산업통상부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3] 미국과 중국 수출 증가율 동반 개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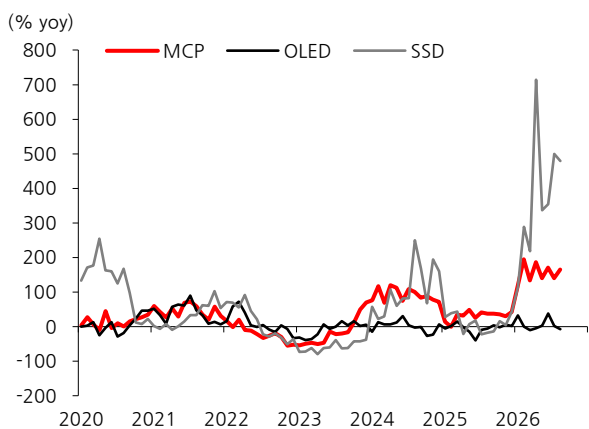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4] 자동차 수출은 휴가와 파업 영향으로 감소 전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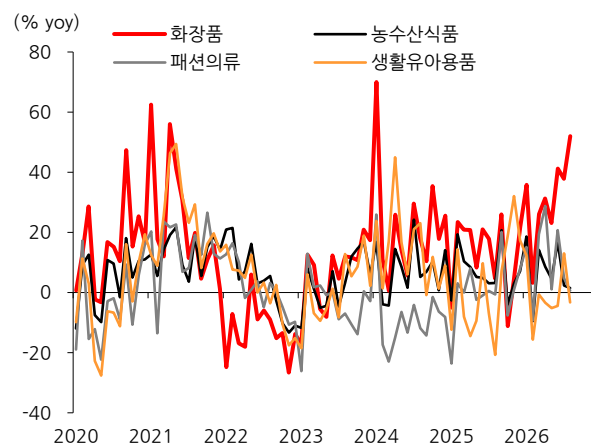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부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5] AI 투자 수요를 반영하는 MCP와 SSD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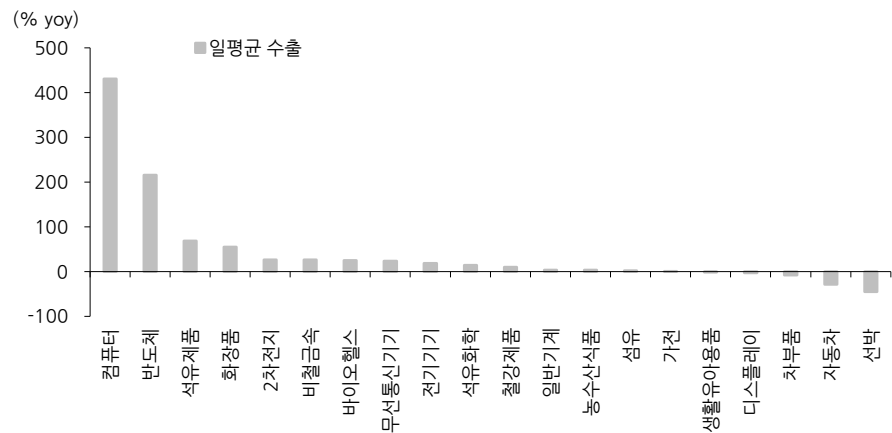
주: MCP(Multi Chip Package)는 HBM, DDR5 등을 비롯한 고용량/고부가 메모리반도체
 자료: 산업통상부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6] 화장품 수출 증가세 강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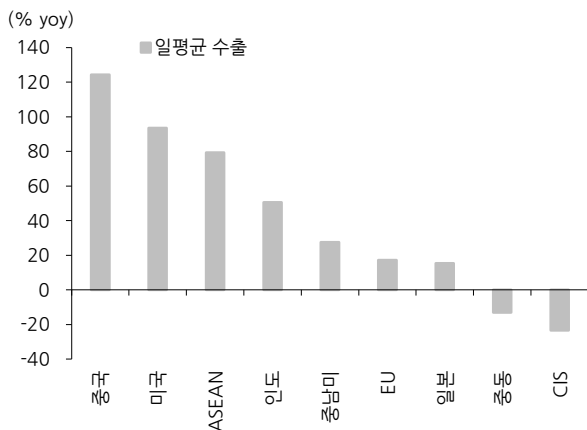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부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7] IT 수출 호조 지속 vs. 자동차와 선박 수출 부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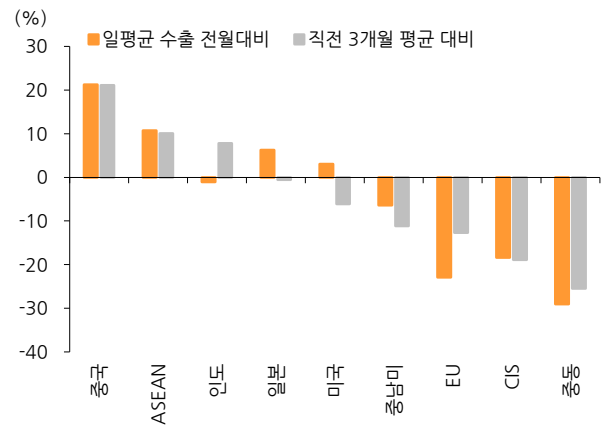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부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8] 대다수 지역 수출 강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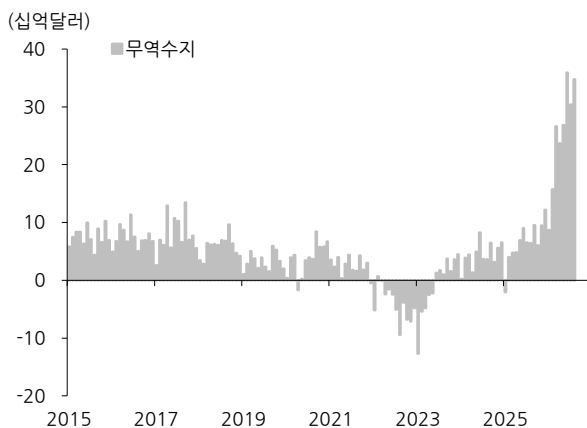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9] 對중국과 ASEAN 수출 상대적으로 양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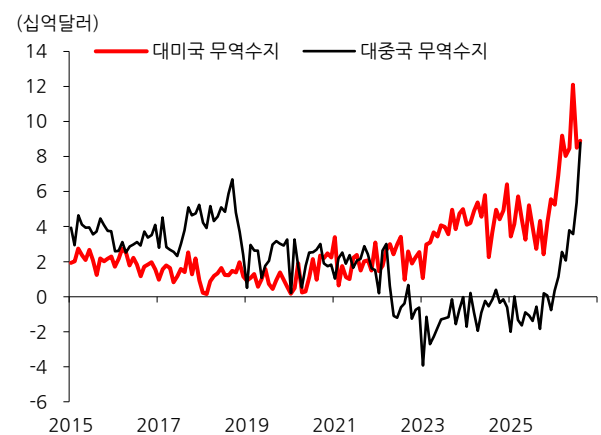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0] 8월 무역수지 347.5억 달러 흑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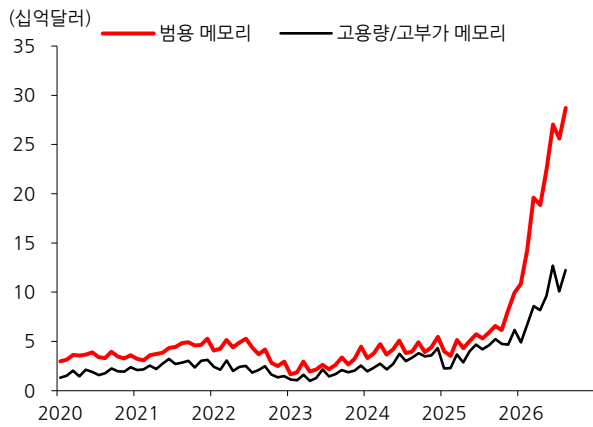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1] G2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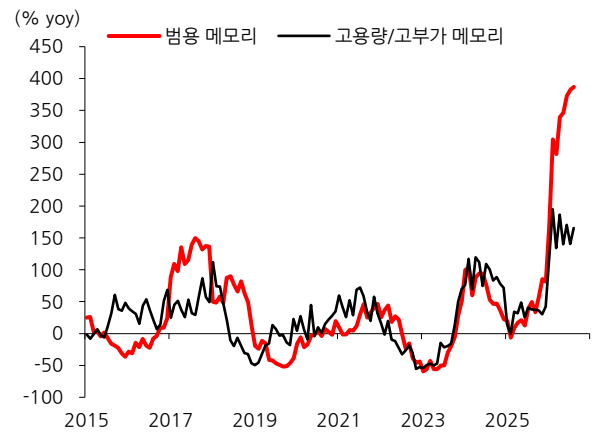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2] 메모리반도체 수출 강세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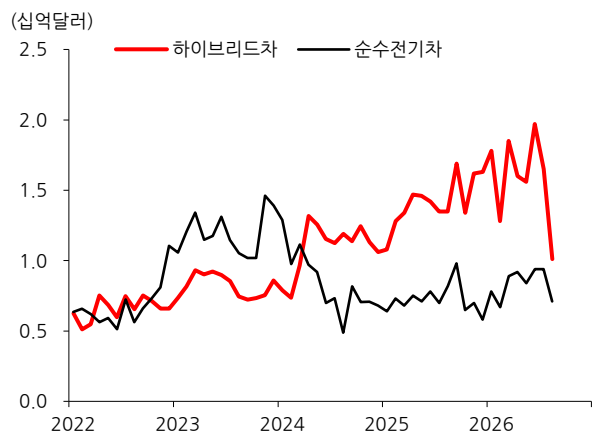
주: 고용량/고부가 메모리는 HBM, DDR5 등을 포함하는 MCP(Multi Chip Package)
 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3] 범용 메모리 +387.1%, 고부가 +165.5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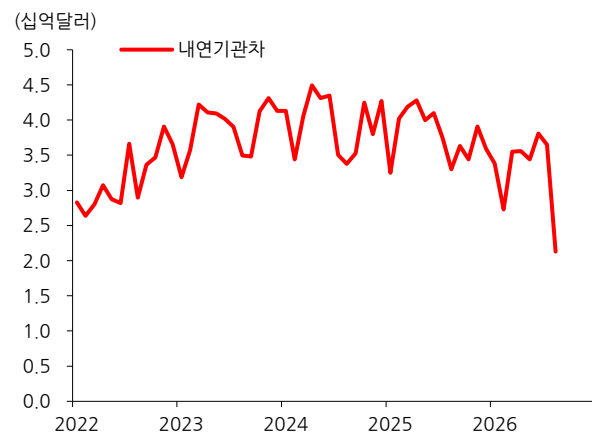
주: 고용량/고부가 메모리는 HBM, DDR5 등을 포함하는 MCP(Multi Chip Package)
 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4] 하이브리드차 -24.7%, 전기차 -14.8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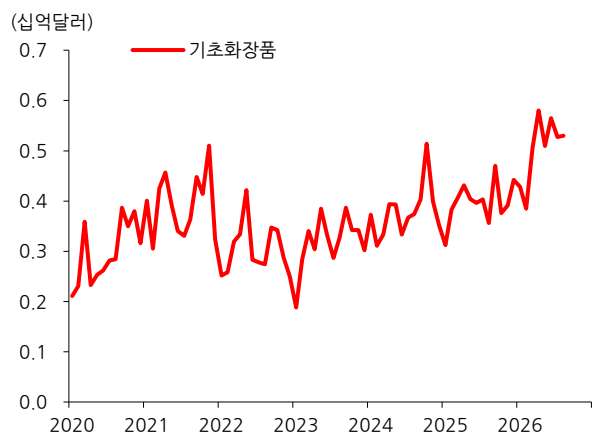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5] 내연기관차 -35.7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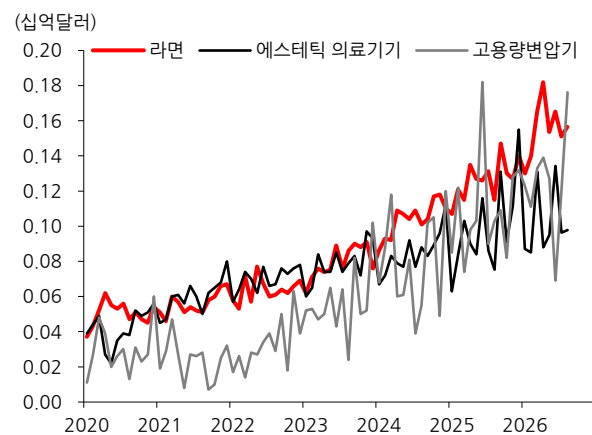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6] 기초화장품 +48.9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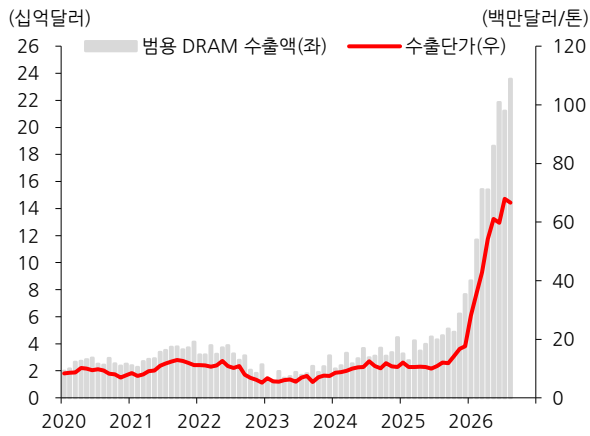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7] 라면 +36.2%, 의료기기 +30.1%, 변압기 +71.2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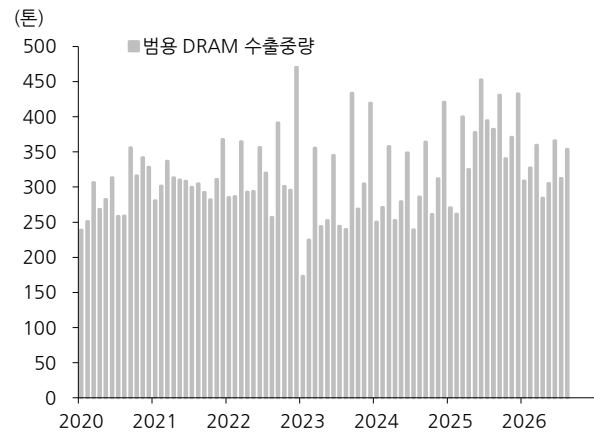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8] 범용 DRAM 단가 YoY +453.3%, MoM -2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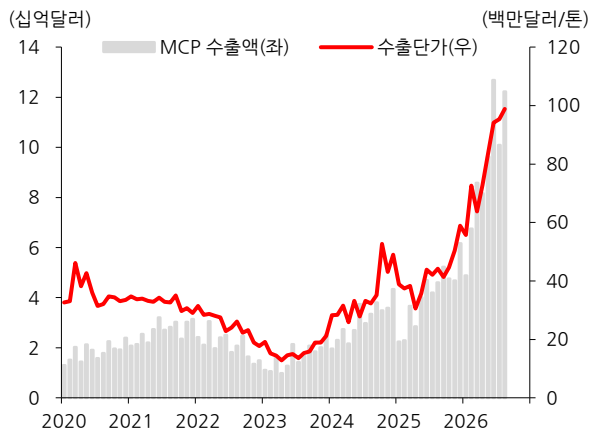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9] 범용 DRAM 중량 YoY -7.5%, MoM +13.3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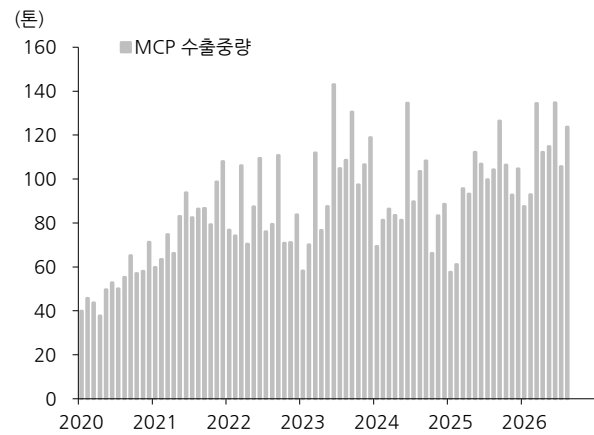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20] 고부가 메모리 단가 YoY +124.0%, MoM +3.6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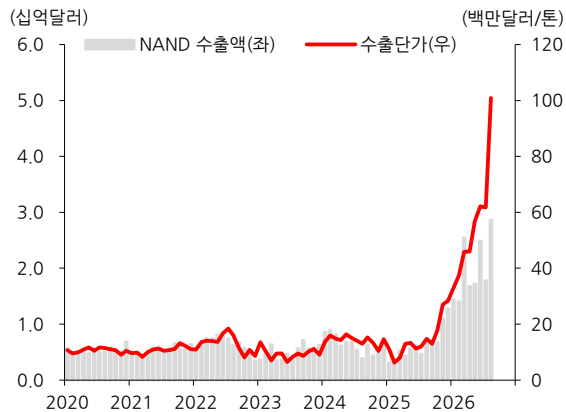
주: MCP(Multi Chip Package)는 HBM, DDR5 등을 포함한 고용량/고부가 메모리
 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21] 고부가 메모리 중량 YoY +18.6%, MoM +17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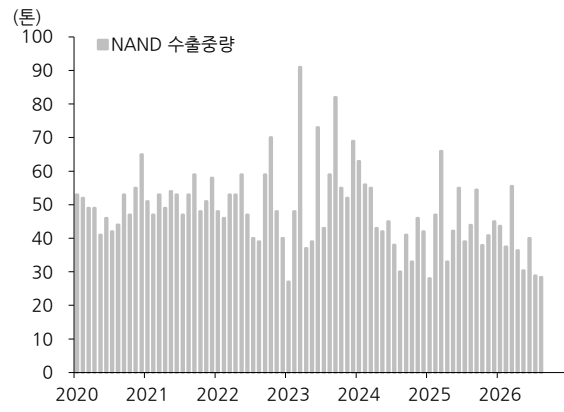
주: MCP(Multi Chip Package)는 HBM, DDR5 등을 포함한 고용량/고부가 메모리
 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22] NAND 단가 YoY +586.4%, MoM +63.1%


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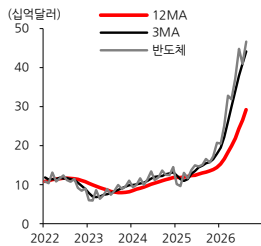
[그림23] NAND 중량 YoY -35.4%, MoM -1.5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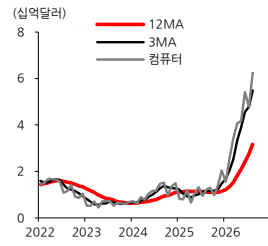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24] 주요품목 수출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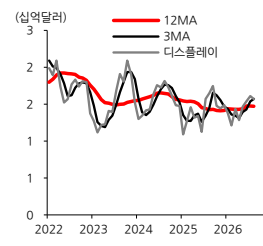
반도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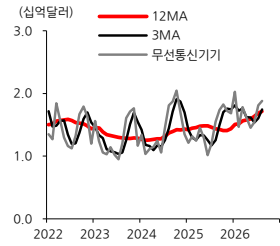
컴퓨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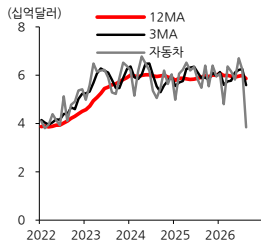
디스플레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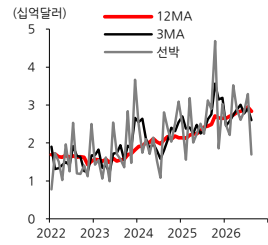
무선통신기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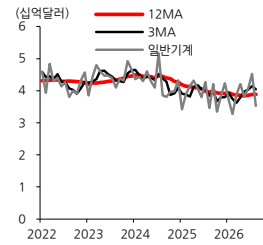
자동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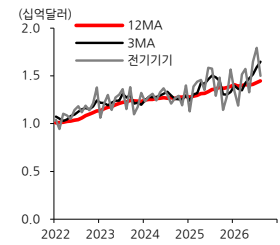
선박



일반기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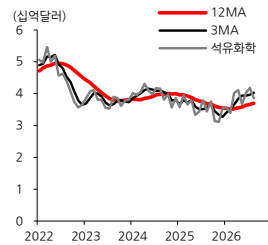
전기기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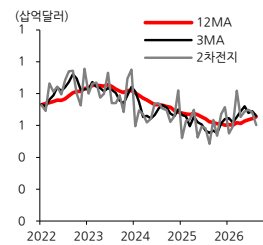
석유제품



석유화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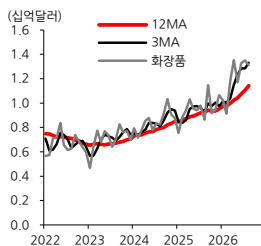
2차전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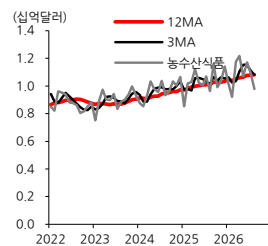
철강제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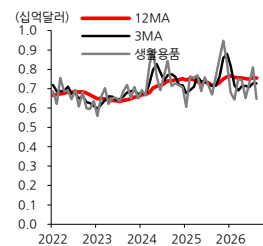
화장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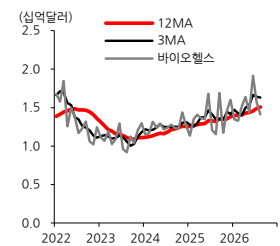
농수산식품



생활용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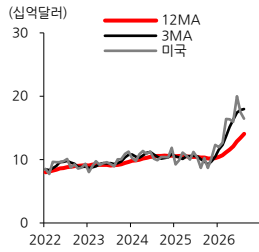
바이오헬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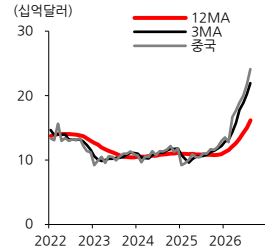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부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25] 주요지역 수출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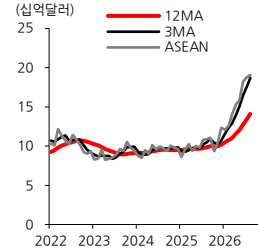
미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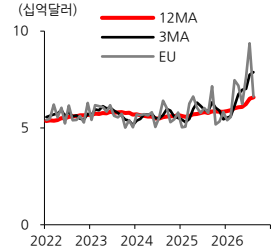
중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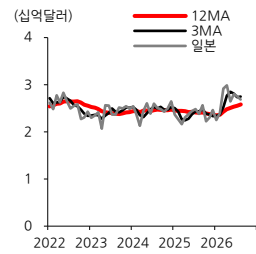
ASEA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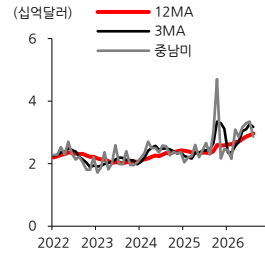
EU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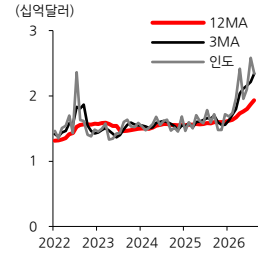
일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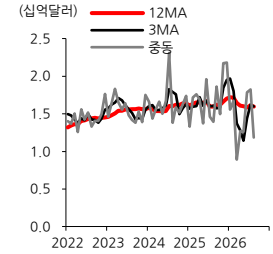
중남미



인도



중동



자료: 관세청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